

# 고의 체납자 소송·생계형 처분 유예로 '맞춤 징수'

### 순천시, 지방세외수입 이월액 줄이기 총력...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 전국 첫 사해행위 취소 소송·차량 과태료 체납자 변호관 영치 등

순천시가 고의적으로 가족 등에게 재산을 빼돌린 지방세외수입 고액 체납자에게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주목을 끈다.

순천시에 따르면 세외수입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한 체납액 징수는 전국 최초 사례이다. 시는 이를 통해 체납처분을 면탈하는 행위를 근절해 조세 정의의 바로 세우고 성실한 납세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순천시는 아울러 연말까지 지방세뿐만 아니라 지방세외수입 이월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쳐 지방재정의 자립에 필요한 재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전략이다.

특히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체납자 유형별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통해 체납자 유형, 체납회수등급 등을 파악해 체납자별 체납사유 및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주 4회 변호관 영치를 진행한다.

또 순천시 징수과는 "따뜻한 동행 일류 징수행정 실현"을 위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체납 유형별 맞춤형 징수 활동을 추진한다. 체납액의 분할 납부유도, 체납처분 유예 등 경제 회복을 지원하고, 현장 징수 활동을 강화해 생계가 곤란한 체납자에게는 복지 부서와 연계해 위기가구 책임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지방자치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자립은 필수적 요건"이라고 강조하며 "재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려운 여건에서도 지방세외수입을 성실하게 납부해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해 준 시민들께 감사드립니다"고 덧붙였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순천시 체납징수 기동반.

<순천시 제공>

## 여수시, 전국 첫 공공비축미 1778t 매입



정기명(맨 앞) 여수시장이 공공비축미 매입현장에서 쌀을 살펴보고 있다.

<여수시 제공>

### 지난해보다 22% 늘어

여수시가 전국에서 가장 먼저 공공비축미 매입을 완료했다.

여수시는 지난달 25일 매입을 시작한 지난 14일까지 21개 수매 현장에서 1778t의 '2022년산 공공비축미'를 매입했다고 밝혔다.

올해 매입 물량은 지난해보다 22% 증가한 4만 4419포대(포대당 40kg) 일반 벼 외에 친환경 벼도 매입을 진행했다. 세부적으로 건조벼 4만2199

포대, 친환경 벼 2220포대를 매입했다.

농가 편의를 위해 톤백(800kg)과 포대벼(40kg)로 나누어 매입했으며, 지난 3일부터는 시장격리곡 1321t도 함께 매입하고 있다.

시는 건조벼 보관에 따른 농가 부담을 완화하고 고령인 농업인들의 추위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에서 가장 먼저 시작해 매입을 완료했다.

매입 가격은 수확기인 10~12월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을 기준으로 연말까지 최종 정산금이 지급될 예정이며, 40kg 포대당 3만 원의 중간정산금은 매

입 직후 농가에 우선 지급됐다.

또 시는 시장격리곡 1321t도 22일까지 매입을 마무리할 예정으로, 생산량 대비 매입량이 충분해 전량을 매입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여수시 관계자는 "농가 부담 완화를 위해 전국에서 가장 먼저 공공비축미를 매입해 농업인들의 호응이 이어지고 있다"며 "올해는 공공비축미 특등 비율도 45%에 달하는 등 품질도 양호해 농가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 소외이웃 외로움 녹이는 기부릴레이



### 곡성읍주민자치위 200만원

### 참푸른글로벌 돼지고기 등 기탁

곡성지역에서 추운 겨울철 어려움이 예상되는 청소년과 노인 등을 위한 기부가 잇따라 훈훈함을 주고 있다.

곡성읍주민자치회는 지역의 청소년들의 성장에 해 기업, 개인 등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기부금을 전달하고 있다.

곡성읍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7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동안 펼쳐진 '곡성 아이스크림 페스티벌'에서 먹거리 부스를 운영해 발생한 수익금 200만원을 미래교육재단에 전달했다.

곡성읍주민자치회는 지역의 청소년들의 성장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수익금 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곡성읍주민자치회는 이 밖에도 경로당 김장김치 나누기, 저소득가정 지원 등의 다양한 봉사활동

등을 펼치고 있다.

또 참푸른글로벌은 곡성군과 '드림스타트 아동의 성장 발달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돼지고기 450kg(300만원 상당)을 기탁했다. <사진> 참푸른글로벌은 지난해 12월 15일에도 지역의 저소득 아동을 위해 한돈을 기탁했으며 매월 정기적으로 드림스타트 저소득 아동 9가구에 지원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10일 목사동면 대곡2구 이장 조공순은 직접 재배한 우렁이쌀 200만원 상당을 지역내 취약계층에 기부했다.

조씨가 기부한 쌀은 총 50포대(10kg짜리)로 지역내 취약계층 50가구에 전달됐다. 조씨는 지난해에도 우렁이쌀을 기부했다.

조씨는 "한국인은 밥심으로 산다"며 추운 겨울 취약계층 주민들이 한끼라도 제대로 식사할 바라는 마음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기부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곡성=박종태 기자 pjtt@kwangju.co.kr

## 여수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다음달 8일까지 신청자 접수

여수시가 '2023년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을 다음달 8일까지 접수 받는다.

신청 자격은 여수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가로, 대상 필지가 농업경영체에 등록돼 있어야 한다. 유기질비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되는 유기질비료는 부숙유기질(가축분퇴비, 퇴비) 2종과 유기질비료(혼합유기질, 혼합유박, 유기질복합) 3종이며, 영농기 이전에 공급받을 수 있다.

내년 여수시의 유기질비료 지원은 2개 사업으로 나눠 진행된다.

농협과의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6억 원, 국비 매칭사업으로 1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각각 유기질비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까지는 국비사업 물량 부족분에 대해서만 농협과의 협력사업으로 추가 지원했으나, 내년부터는 분리 시행되는 점이 달라졌다.

시에 따르면 지역 내 가축분뇨의 처리와 공동자원화시설 활성화를 위해 분리 지원하게 되었으며, 국비 매칭사업은 농식품부의 사업지침에 따라 지원된다.

지자체 협력사업은 친환경 인증농가 등 우선순위 지원대상에 한해 지역 내 제품으로 부숙유기질비료를 신청할 경우 포대 당 2400원이 정액 지원된다.

국비 매칭사업의 경우 전년과 동일하게 종류별로 1800~2100원이 차등 지원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여수시 홈페이지(www.yeosu.go.kr)에서 확인하거나, 여수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061-659-4416)으로 문의하면 된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 순천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땀 과태료

### 시, 25일까지 일제단속...적발 땀 2천만원 이하 과태료·가맹점 취소

순천시가 오는 25일까지 순천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해 일제 단속에 나선다.

순천시는 순천사랑상품권의 유통량이 증가하며 '불법환전'을 비롯한 부정 유통 사례도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해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소위 '깡') ▲상품권 가맹점이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행위 ▲상품권 가맹점이면서 결제거부 및 다른 결제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특히 현금영수증 발행거부 등)하는 경우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시는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수집해 의심 가맹점(연속된 일련번호 환전, 구매 후 즉시 환전 등)을 불시에 현장 방문

해 단속할 계획이다. 위반 사실을 적발하면 가맹점 등록취소, 최대 20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부정사용 상품권 환수, 수사 의뢰 등 조치를 할 방침이다.

단속과 함께 시는 상품권 부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연중 부정유통신고센터(061-749-5488)를 운영해 주민 신고를 받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순천사랑상품권 발행이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목적이 있지만, 시민들의 건전한 사용이 전제되어야만 진정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면서 "상품권 부정유통 근절에 시민분들이 앞장서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 발효식품 전문가로 첫 걸음

### 광양시 발효식품 아카데미 1기 수료생 20명 배출

광양시 발효식품 아카데미가 1기 수료생을 배출했다.

광양시는 지난 10일 8회차 수업 과정을 마무리하며, 농업인교육관에서 수료생 20명과 함께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발효식품 아카데미'는 최근 코로나19 장기화 및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건강식품인 발효식품에 대한 교육수요가 높아지고 광양시의 발효식품 활성화를 위해 올해 신설한 교육과정이다.

교육은 지난 9월 22일~11월 10일 총 8회 과정으로 진행되었으며 발효식품 제조에 필요한 전문 지식을 전달하기 위한 이론과 실습교육으로 교육생들의 뜨거운 반응을 받았다.

교육생들은 발효와인 제조를 위해 직접 농산물은 농산물인 석류, 허브, 포도, 돌배, 배, 사과 등 다양한 재료로 와인을 제조하고, 저장과 숙성과정

동안 향과 맛의 변화를 느끼며 와인·식초 발효과정을 경험했다.

농식품가공 창업교육의 일환인 발효식품 아카데미는 내년 매실와인(7월)과 발효식초(9월)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교육생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교육내용을 편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 중 농식품 가공 기초·심화교육이 예정돼 있으며 농산물가공센터에서 가공을 희망하는 교육생은 심화교육 수료 후 광양농부영농조합법인에 가입해 가공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정상범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건강과 건강식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교육생들이 지역 농산물을 이용해 경쟁력 있는 발효식품을 만드는 전문가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 산수유 익어가는 구례로 오세요

### 19·20일 웰니스 페스티벌...개막공연·강레오 셰프 음식 시연 등



서리가 내린 후 수확하는 산수유

'구례산수유 웰니스 페스티벌'이 19일부터 20일까지 구례군 산동면 산수유꽃축제장 일원에서 펼쳐진다.

이번 축제는 전국 산수유의 77%를 차지하는 구례산수유를 활용한 관광자원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을 받아 추진된다.

개막일에는 황교익, 박상현 등 유명 음식 평론가들이 참여한 푸드 토크쇼인 '알쓸신잡'과 김희재, 박군, 장하은 등이 출연하는 개막 축하공연이 열린다.

이튿날에는 강레오 셰프와 함께하는 산수유 음식 개발 시연이 펼쳐진다.

'알쓸신잡'과 '강레오 셰프' 프로그램 사전 접수

신청자에게는 기념품과 함께 산수유 무료체험권이 주어진다.

이외에도 축제장에 오면 산수유 까기, 산수유 떡메치기, 액기스·술 만들기 등의 다양한 체험행사와 함께, 산수유 모바일 스탬프 투어, SNS 이벤트, 톨렛 이벤트, SNS 사진 콘테스트, 산수유 꽃담길 걷기 등 다양한 이벤트 행사가 펼쳐진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축제를 하더라도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안전접점을 한층 강화하여 추진하되, 산수유 열매 축제를 통해 구례산수유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주민소득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축제를 정례적으로 개최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